

Crisisonomy Vol.16 No.6, 1-16
ISSN 2466-1198 (Print) ISSN 2466-1201 (Online) https://doi.org/10.14251/crisisonomy.2020.16.6.1
© 2020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Theory and Praxis. All rights reserved.

Crisisonomy

Trend of Research on Psychological Support for Infertility in South Korea

- A Review of Journals and Theses between 1988~2020 -

Kang Hee Park+

Ewha Pastoral Counseling Center, Ewha Womans University, 53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of infertility studies that have been done in South Korea with the purpose of finding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the existing studies. A total of 100 academic journals and master's and doctoral theses published from 1988 to February 2020 was reviewed in terms of the basics, subject, topic, and method of the study. It is found that infertility studies have been consistently conducted and rapidly increased since 2010. The largest number of infertility studies was published in the field of nursing and a majority of the study subjects were infertile women who accounted for 88% of those studied. The topics were mostly related to psychology and adaptability, and 64% of the total studies examined used quantitative approach as their primary method of study. The analytic results of this study have been interpreted and discussed in terms of the policy implications that they imply in South Korea and the potential direction for future studies on infertility and infertility counseling.

Key words: infertility, involuntary childless, research trend, content analysis

Ⅰ. 서 론

본 논문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난임 연구논문들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이루어진 난임에 대한 심리적 지지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현재 난임 연구의 특징과 경향성을 가늠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난임은 모성과 재생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내포하기 때문에 난임 여성에게는 정체성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임신을 계획해 온 부부에게도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의료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난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보조생식술(A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이 첨단화, 고도화되어 이제 난임은 임신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치료를 통해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난임을 심각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2006년부터 난임 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 치료비를 지원하고 2017년에는 난임 시술비 지원과 난임 치료를 건강보험급여대상으로 적용하여 난임 부부 지원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난임 치료의 과정을 돕고 있다(Hwang, *et.*

+ Corresponding author: Kang Hee Park, Tel. +82-2-3277-2491, Fax. +82-2-3277-3734, e-mail. pkhope@naver.com

al., 2018). 이와 같은 보조생식술의 발전과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난임 부부가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지만, 낮은 임신성공률(체외 수정은 32.4%, 인공수정은 13.5%)과 높은 원인불명의 난임 비율(44.5%)로 인해 난임 대상자 수는 계속 누적되고 있다(Hwang, 2013). 우리 나라 난임 진단 및 진료인구는 2010년 이후부터 매년 약 20만 명 이상이 진단되었고, 2017년에는 21만 여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Hwang, 2018: 22). 더욱이 최근의 한국 사회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 0.98명으로 세계 유일의 0명대 초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어(Statistics Korea, 2018) 난임 문제가 인구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국가적인 정책에서도 매우 중요한 논제라고 볼 수 있다.

난임의 진단과 치료과정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따르며 치료 후에도 임신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Park, 2014: 115). 이 과정에서 신체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우울, 슬픔, 수치심 등의 다양한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며(Kang & Lee, 2015; Kim & Kim, 2018), 부부관계에도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경험하고(Boivin, *et. al*., 2011; Hwang, 2013: 12) 가족 간의 단절과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한다(Bae & Park, 2007; Valsangkar, *et. al*., 2011). 이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은 암 또는 HIV(후천성 면역결핍증)를 겪는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의 불안과 우울 증상을 보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Domar, 2000: 807), 난임 여성의 63%는 이혼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난임 치료를 받는 시기를 인생의 큰 위기로 느낀다(Domar, *et. al*., 1993; Kim, *et. al.*, 2016). 그리하여 미국 생식의학회(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와 유럽 생식 발생학회(Europe Society of Human Reproduction and Embryology)는 난임을 생리・심리・사회적 위기로 인식하여 난임 치료와 난임 대상자의 심리상담과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였다(Hwang, *et. al.,* 2015).

난임 치료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과 부정적 정서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22%에 이르고 있어 난임 대상자들의 심리적 건강을 위한 난임 상담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Gameiro & Boivin, *et. al.,* 2015; Kwon, 2019: 100). 국내 난임 여성들의 경우 95%가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Hwang, 2011: 8), 난임 치료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중 '치료 전 심리상담'이라는 항목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날 정도로 난임 여성의 심리상담 요구가 높은 편이다(Hwang, 2003: 94). 그러므로 난임 대상자들이 겪는 감정적 위기 상황에서 심리적 전문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난임의 사회심리적 문제에 대한 중재방안 마련을 위해 심리전문가가 포함된 팀 접근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난임 심리상담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Gameiro & Boivin, 2015). 국내에서는 아직 난임 대상자들을 위한 공적 상담 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이에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Kwon, 2019: 89).

난임 대상자들을 위한 심리상담의 초기 이론들은 처음에는 난임의 원인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난임 여성의 심리적 갈등에 관심을 가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차 결혼생활의 어려움, 심리적 중재의 효용성, 심리측정 도구와 같은 심리적 반응에 중점을 두었다(Burns, 1993). 이후 난임 여성들의 우울 감소를 위한 인지행동치료 기법(Faramarzim & Alipor, 2008; Mosalanejad, 2012), 정보제공과 기술 훈련을 중점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난임과 관련된 사고와 감정 탐색 및 표현에 중점을 둔 상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Domar, *et. al.,* 2011). 이러한 심리상담 서비스는 난임 여성의 고통 완화 및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Cousineau, *et. al*., 2004; Chan, *et. al.,* 2006).

국내 난임 연구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2010년대 이후부터는 상담・심리학 분야뿐만 아니라 예술치료, 사회복지, 여성학, 가정학 분야 등에서도 난임은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고 있다. 난임에 대한 연구는 심리적응과 스트레스에

중점을 둔 연구(Kim, *et. al.,* 1995; Kim, 2007), 난임 여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Jung, 2001; Kim & Shin, 2013), 난임 경험에 대한 연구(Kang, 2004; Bae & Park, 2007; Yang, 2019), 심리사회적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연구(Jung, 2010; Ha, 2013; Kang & Lee, 2015; Park & Joo, 2019)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외 연구에서는 난임 자체의 경험뿐만 아니라 난임 상담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국내 난임 연구는 심리적 경험에 초점을 둔 양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고 실제적인 난임상담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듯 국내에서 난임은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중요한 주제로 연구되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난임 대상자들의 심리・정서적 이해와 지지를 위한 조력으로 난임에 대한 심리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며,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난임 관련 연구들을 정리함으로써 통합적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난임에 관한 연구 검증이 일차적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의 상담학 및 인접 분야는 시대적 과제에 따라 난임 대상자를 주제로 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왔으나, 난임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통합적인 이해를 제시하는 연구는 수행된 바가 없다. 난임 연구에 대한 동향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연구 분야, 연구 대상, 연구 주제, 연구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내에 난임 관련 동향 분석 연구가 보고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최근까지의 축적된 난임 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히 난임 인구의 증가에 따라 적절한 심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난임 연구 동향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대상 자료로 학회지와 학위논문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회지는 해당 학문의 공식적 학술 교류의 장이자 해당 학문의 발전과 성숙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기능한다(Cho, 2003: 813). 또한, 학문적 성과를 이루는 학위논문은 그 시대의 학문적 관심과 흐름을 반영한다. 이에 학술지와 학위 논문에 있는 난임 연구를 분석함으로써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난임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문제점이나 한계점을 파악하여 앞으로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난임 연구가 시작된 1988년부터 2020년 2월까지 32년간 국내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난임 관련 논문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연구 진행과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의 시사점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난임 연구의 발전 방향을 제언하고 향후 국내의 난임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본 연구의 내용이 향후 난임 상담 연구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1988년부터 2020년 2월까지 32년간 난임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표된 KCI 등재지 및 등재 후보지에 게재된 학술지 논문과 석・박사 학위논문 100편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대상 논문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학술지 인용 색인(http://www.kci.go.kr),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검색엔진 시스템에서 '불임', '난임', '비자발적 무자녀', '보조생식술'을 주제어로 검색하였으며 검색된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논문명과 초록, 연구주제 및 연구내용을 확인한 후 난임의 심리적 특성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접근에 대한 연구, 난임 대상자들의 특성 이해를 통한 상담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수집된 선행 연구의 참고문헌을 검토하여 전자 검색에서 찾아내지 못한 선행연구의 유무를 확인하였고 참고문헌에서 발견한 관련 논문들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수집한 논문 중 난임의 심리적 특성과 상담활동의 이해에 활용될 수 있는 연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난임에 대한 정책 논문과 난임 시술과 신체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의학 논문은 제외하였다. 검색된 논문 중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중복으로 게재된 연구들은 학술지 게재를 우선으로 채택하였고, 주제어는 일치하나 본 연구의 주제에서 벗어난 논문(난임에 대한 신학적 접근, 문학적 접근 등)은 제외하여 총 100편(학술지 논문 56편, 석사 논문 13편, 박사 논문 13편)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평정절차

본 연구는 상담 박사학위와 난임 상담 연구 경험이 있는 1인, 상담학 박사학위 수료자 1인, 심리학 박사학위자 1인의 연구자가 다음의 자료 분석절차를 거쳤다. 첫째, 연구자 1인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대상 연구물을 찾고 분류하였다. 난임 연구로 수행된 모든 연구물을 수집한 뒤 주제어, 제목, 초록, 본문 내용을 모두 살펴서 분석대상을 선정하였고, 정책, 의료법과 관련된 연구는 제외하였다. 둘째, 분류 준거 틀을 선정하기 위해 상담학 분야에서 연구 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분류범주를 구성하였다. 선행 연구 동향 논문에서 사용한 분석 준거의 각 항목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항목들을 결정하였다. 연구자 1인이 평정기준을 설명하고, 연구자 간에 서로 보충하면서 순환적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연구자 간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4가지 영역으로 분류기준을 설정하였다. 셋째, 평정자 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평정자 1인이 각 논문의 초록과 논문내용을 분석 틀에 맞춰 분류하였고, 분류한 1차 자료를 다른 평정자들이 재검토한 후에 최종 적합 여부를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3. 평정도구

난임에 대한 국내 연구의 동향분석이 없어 연구 동향분석 관련 선행연구의 분류범주를 참고하였다(Shin & Kim, 2016; Oh, *et. al.,* 2016; Kim & Kim, 2017). 분류범주의 세부항목은 이들의 분석 준거를 참고하여 연구 의 주제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분석 틀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한 분류범주는 기초사항(출판연도, 학위 및 학술지 논문 구분, 연구자의 전공분야), 연구대상(여성, 남성, 부부, 기타), 연구주제(심리 및 적응, 난임 상담 성과, 삶의 질, 난임 경험, 측정도구), 연구방법(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문헌연구)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범주 및 세부사항은 <Table 1>과 같다.

기초사항은 연도별 기준으로 논문의 수를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으로 분류하고 학문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연구물의 발간연도는 연도를 3년씩 8개의 급간으로 나누었고 어떤 전공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연구자 전공 분야를 분석하였다. 연구자 전공 분야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와 세부 전공 분야를 교차 분석하여 간호학, 보건학은 간호보건학으로, 상담심리, 심리학, 목회상담 등은 상담・심리로, 가족복지, 사회복지 등은 사회복지학으로, 미술치료, 표현예술치료는 예술치료로 가정학, 여

Table 1. Classified category and details

Classsified category	Details
Basics	Publication year, Thesis and academic journal, Academic field
Object of research	Female, Male, Couple, Etc
Subject of research	Psychology adjustment, Counseling performance, Quality of life, Infertility experience, Literature research, Inventory, Social relation
Research method	Quant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Literature research, Mixed research

성학은 가정・여성으로, 사회학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은 4가지 분류기준으로 나누었다. 분석대상 논문에 연구대상이 명확하게 분류되어 제시한 경우 분석대상의 논문을 따랐고 연구대상이 없는 문헌연구와 그 외의 분석대상 논문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분류기준은 1) 여성 2) 남성 3) 부부 4) 기타로 나누었다. 연구주제의 분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Buboltz, *et. al.*(1999) 등이 제시한 범주를 재수정하거나(Cho, 2003; Oh, *et. al.*, 2016) 연구주제에 맞추어 연구자들이 범주를 구성하는 연구(Shin, 2016; Shin & Kim, 2016)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난임 연구에서 직접 다루어진 연구주제를 분류하여 7개 범주(심리 적응, 상담 성과, 삶의 질, 난임 경험, 문헌연구, 측정 도구, 사회적 관계)로 구성하였다. 연구방법 분류기준 동향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연구, 문헌연구로 분류하여 백분율을 구하였다. 한편 양적 연구는 조사연구와 실험연구로 다시 세분화하였고 질적 연구는 현상학, 근거이론, 사례연구, 문화 기술지, 내러티브, 생애사, CQR(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포커스 면접으로 세분화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도별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수 분석

1988년부터 2020년 2월까지 국내 학술지 논문 및 학위논문에 있는 난임 관련 연구의 연도별 연구 동향에 대한 결과는 <Figure 1>에 나타나 있다. 난임에 대해 발표된 논문 수는 학술지 논문 56편, 박사학위 논문 13편, 석사학위 논문 31편으로 총 100편에 해당한다. 전체 연구를 연구연도별로 살펴보면 1988년-2011년까지 급간별 평균 5편 정도로 발표되다가 2012년-2014년에 13편으로 증가하고 2015년-2017년에 22편, 2018년-2020년 24편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2020년의 경우 2월까지 발행된 연구만 포함하였음을 고려할 때 난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난임 연구 논문을 학술지와 학위논문에 따라 연도별로 분석했을 때 학술지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학술지 논문은 총 56편이며, 처음으로 발표된 시기는 1988년으로 첫 난임 연구가 이루어졌다. 1988년-1999년까지 급간별 평균 3편의 논문이 발표되다가 2000년-2002년에 1편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2003년-2005년 2편, 2006년-2008년 5편, 2009년-2011년 1편이었다가 2012년-2014년 8편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2015년-2017년 13편, 2018년-2020년에는 15편으로 2012년 이후로 난임 연구의 발행이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석사학위 논문은 1988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1.3편으로 미미한 발행 수가 2015년-2017년에 6편, 2018년-2020년에 8편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박사학위 논문은 1993년 첫 발행 이후 2011년까지 13년간 7편에 지나지 않던 발행 수가 2012년-2014년에 4편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5년-2017년에도 2편의 논문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년도별 학술지와 학위논문 동향은 <Figure 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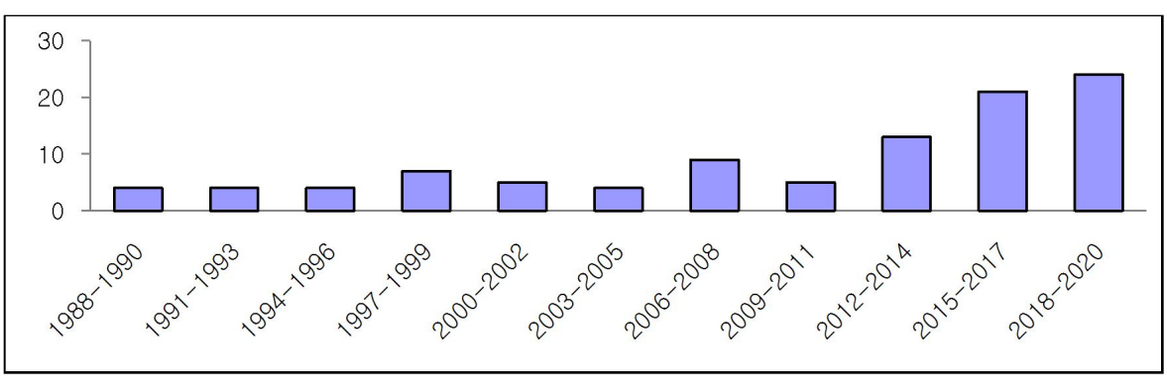


Figure 1. Number of papers by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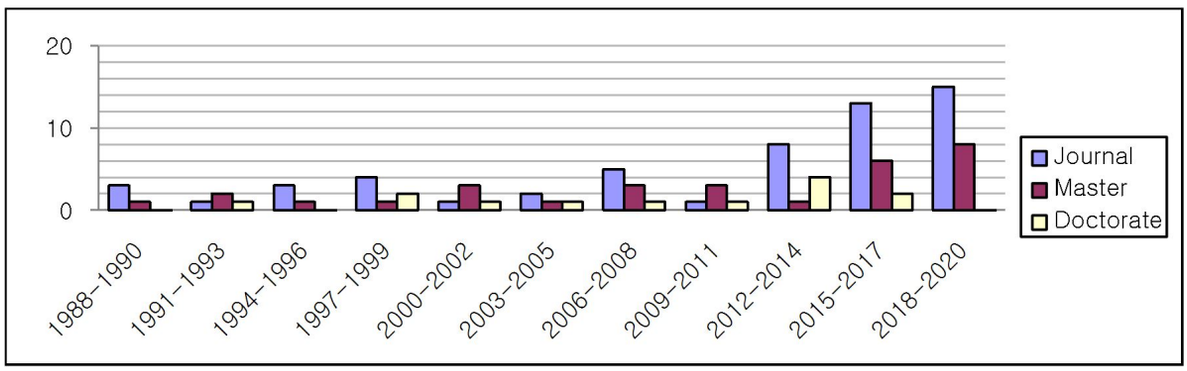


Figure 2. Number of journals and theses by year

2. 연도별 학문분야 게재 분석

난임과 관련해 연구한 논문 100편의 학문분야 게재 및 연도별 학문분야 연구 동향은 <Table 2>와 같다. 난임 연구자의 전공 분야를 살펴보면 전체 100편의 연구물 가운데 간호보건학 62편, 예술치료 13편, 상담・심리 12편, 사회복지 7편, 가정・여성학 5편, 사회학 1편 순으로 나타났다. 난임 연구가 시작된 1988년부터 1999년까지 난임에 대한 연구 논문은 총 19편이 출간되었는데 연구의 대부분은 간호보건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18편, 99%). 2000년-2002년에 사회복지 전공, 2003년-2005년 예술치료 전공, 2006년-2008년에 상담・심리 전공자의 첫 연구가 발표되면서 난임 연구에 대한 연구가 다학문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연도별로 연구자의 전공분야를 살펴보면 1988년-1990년에 간호보건학 분야에서 4편의 연구가 발표된 이후 2002년까지 22편의 연구가 이루어져 전체 논문 24편 가운데 88%를 차지할 정도로 주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3년-2005년에는 간호보건학 2편, 예술치료 1편, 사회복지 1편으로 예술치료와 사회복지 전공자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2006년-2008년에는 간호보건학 8편, 상담・심리 1편으로 간호보건학 전공의 연구가 증가하는 한편 처음으로 상담심리 분야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2009년-2011년은 간호보건학 3편, 예술치료 1편, 가정・여성 1편으로 다소 미미한 양상을 보이다가 2012년-2014년은 간호보건학 4편, 예술치료 2편, 상담・심리 4편, 사회복지 2편, 가정・여성 연

Table 2. Analysis of trends by the year and field of study

year	Publication number			n(%)	Field of study						n(%)
	Journal	Master	Doctorate		Health nursing	Art therapy	Counseling psychology	Social welfare	Family Feminine	Social	
1988-1990	3	1	0	4(4)	4	0	0	0	0	0	4(4)
1991-1993	1	2	1	4(4)	3	0	0	0	0	1	4(4)
1994-1996	3	1	0	4(4)	4	0	0	0	0	0	4(4)
1997-1999	4	1	2	7(7)	7	0	0	0	0	0	7(7)
2000-2002	1	3	1	5(5)	4	0	0	1	0	0	5(5)
2003-2005	2	1	1	4(4)	2	1	0	1	0	0	4(4)
2006-2008	5	3	1	9(9)	8	0	1	0	0	0	9(9)
2009-2011	1	3	1	5(5)	3	1	0	0	1	0	5(5)
2012-2014	8	1	4	13(13)	4	2	4	2	1	0	13(13)
2015-2017	13	6	2	21(21)	12	5	1	2	1	0	21(21)
2018-2020	15	8	0	24(24)	11	4	6	1	1	0	24(24)
n(%)	56(56)	31(31)	13(13)	100 (100)	62(62)	13(13)	12(12)	7(7)	5(5)	1(1)	100 (100)

구가 1편으로 난임 연구의 편수뿐만 아니라 연구 분야가 확장되었다. 2015-2017년은 간호보건학 12편, 예술치료 5편, 상담・심리 1편, 사회복지 2편, 가정・여성 1편으로 간호보건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2018년-2020년에는 간호보건학 11편, 예술치료 4편, 상담・심리 6편, 사회복지 1편, 가정・여성 연구가 1편으로 상담학 분야와 예술치료 분야의 연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 대상별 분석

난임 관련 연구의 연구대상별 동향은 <Table 3>과 같다. 분석 결과, 난임 여성 88편, 부부 5편, 남성 2편, 기타 5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논문 100편 가운데 대상이 없는 연구(척도개발, 난임 상담 프로그램 운영 실태, 근거기반 상담, 난임 상담 실패조사, 전문가 포커스 그룹면접 연구)는 5편으로 조사되었다. 학술지 논문 56편 중 난임 여성 대상 연구는 46편, 부부 대상 연구는 4편, 남성 대상 연구는 1편, 특정 대상이 없는 연구는 5편으로 나타났다. 석사학위 논문 31편 중 난임 여성 대상 연구 30편, 부부 대상 연구는 1편이었고, 박사학위 논문 13편 중 난임 여성 대상 연구는 12편, 남성 대상 연구는 1편이었다. 연구의 대부분이 난임 여성 대상 연구에 편중되어 있었으며(88%) 난임 남성과 난임 부부에 대한 연구는 전체의 7%에 지나지 않아 대상에 대한 연구의 다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주제별 분석

난임 관련 연구의 주제별 연구 동향은 <Table 4>와 같이 크게 7개로 분석하였다. 연구주제는 복수의 변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가 많아 복수처리를 하였다. 연구주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연구는 난임의 심리 및 적응과 관련된 변인으로 전체 연구 중 48편을 차지하였다. 연구주제 분석에서 가장 높은 연구 비중을 차지한 심리 및 적응에 관련된 변인을 다시 두 가지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난임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로, 주로 학술지와 석사학위 논문에서 많이 다루어졌다. 두 번째 유형은 난임과 관련된 심리일반에 대한 주제로, 우울, 불안, 자존감, 고독감, 슬픔, 적응이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다.

Table 3. Analysis of trends by object of study

	Infertility woman	Infertility couple	Infertility man	Etc	n(%)
Journal	46(46)	4(4)	1(1)	5(5)	56(56)
Master	30(3)	1(1)	0(0)	0(0)	31(31)
Doctorate	12(12)	0(0)	1(1)	0(0)	13(13)
n(%)	88(88)	5(5)	2(2)	5(5)	100(100)

Table 4. Analysis of trends by subject of study

Division		Journal	Thesis		n (plural)
			Master	Doctorate	
Psychology adjustment	stress	13	10	1	24
	general	15	6	3	24
	total	28	16	4	48
Counseling performance		5	9	2	16
Quality of life		8	4	1	13
Infertility experience		7	2	4	13
Literature research		6	2	2	10
Social relation		7	1	1	9
Inventory		2	0	0	2

그다음으로는 난임 상담 프로그램의 상담 성과(16편), 난임 대상자들의 삶의 질(13편), 난임 경험(13편), 문헌 연구(10편), 사회적 관계(9편), 측정 도구(2편)에 대한 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 및 적응 주제를 제외한 나머지 주제들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난 측정 도구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이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난임 연구 초기에는 스트레스가 주된 연구주제였다가 최근에는 상담 성과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또한 난임 연구가 빠른 성장을 보인 2012년 이후에는 연구주제들이 폭넓고 다양해지기 시작하였다. 그 가운데 학술지 논문은 심리・적응과 관련된 변인에 관한 주제연구가 가장 많았고 석사학위 논문은 주로 성격 심리와 적응에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상담 성과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박사학위 논문은 난임 경험과 심리적응에 대한 주제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나머지 주제는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5. 논문 유형 및 전공분야별 연구방법 분석

연구방법의 동향 분석결과인 <Table 5>를 살펴보면, 전체 연구에서 양적 연구 64편(64%), 질적 연구 28편(28%), 혼합 연구 1편(1%), 문헌 연구 7편(7%)으로 확인되었다. 양적 연구에서 조사 연구는 52편(52%), 실험 연구는 12(12%)편으로 나타났다. 학술지 논문을 보면 56편 중 양적 연구는 37편(조사연구 32편, 실험연구 5편), 질적 연구는 15편, 문헌 연구는 4편으로 나타났다. 석사학위 논문 31편 중 양적 연구는 22편(조사 연구 17편, 실험 연구: 5편), 질적 연구는 6편, 혼합 연구 1편, 문헌 연구 2편으로 나타났다. 박사학위 논문 13편 중 양적 연구 5편(조사 연구 3편, 실험 연구 2편), 질적 연구 7편, 문헌 연구는 1편으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질적 연구는 난임 대상자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논의이므로 질적 연구방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라고 추측이 가능하다. 난임 관련 질적 연구는 학술지에 가장 많은 질적 연구 방법이 실렸고(15편, 53.6%), 박사(7편, 25%), 석사(6편, 21.4%) 순으로 나타났다. 난임 연구에서 질적 연구 방법에 따른 분류는 <Table 6>과 같다. 질적 연구를 세분화해서 보면 현상학 연구 11편, 근거이론 4편, 내러티브 4편, 사례연구 3편, 생애사 2편, 문화기술지 2편, 합의적 CQR(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1편, 포커스 인터뷰면접 1편으로 나타났다. 학술지 논

Table 5. Analysis of trends by research method

	Quant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Mixed research	Literature research	n(%)
	Survey	Experimental				
Journal	32	5	15	0	4	56
Master	17	5	6	1	2	31
Doctorate	3	2	7	0	1	13
n(%)	52	12	28	1	7	100

Table 6. Analysis of trends by qualitative research method

	Qualitative research								
	Phenomenological study	Grounded theory	Narrative	Case study	Ethnography	Life history	CQR	Focus	n(%)
Journal	9	1	1	1	0	1	1	1	15(53.6)
Master	1	0	2	2	0	1	0	0	6(21.4)
Doctorate	1	3	1	0	2	0	0	0	7(25)
n(%)	11(39.3)	4(14.3)	4(14.3)	3(10.7)	2(7.1)	2(7.1)	1(3.6)	1(3.6)	28(100)

문 15편 중 현상학 연구가 9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근거이론, 내러티브, 사례연구, 생애사, CQR, 포커스 연구는 각각 1편으로 나타났다. 석사학위 논문 6편 중 현상학, 생애사 연구는 각각 1편, 내러티브와 사례연구는 각각 2편씩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학위 논문 7편 중 현상학 1편, 근거이론 3편, 내러티브 1편, 문화기술지 2편으로 다양한 연구 방법이 나타났다.

전공 분야별 연구방법 분류는 <Table 7>과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간호학 전체 62편 중에서 질적 연구는 10편, 양적 연구는 50편인데, 조사연구는 45편, 실험연구는 5편, 문헌연구는 2편으로 나타났다. 예술치료 전체 13편 중 질적 연구는 5편, 양적 연구는 7편 중 조사연구는 2편, 실험연구는 5편이었고 혼합연구는 1편으로 나타났다. 상담・심리는 질적 연구 4편, 양적 연구는 4편 중 조사연구 2편, 실험연구 2편이었다. 문헌연구도 4편이 확인되었다. 사회복지는 7편 중 질적 연구 5편, 양적 연구는 2편 중 조사연구 2편이었다. 가정・여성은 질적 연구 3편, 양적 연구 1편 중 조사연구 1편이었다. 사회학은 질적 연구 1편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1988년부터 2020년 2월까지 국내 학술지 및 석・박사 학위논문에 게재된 난임 관련 연구들을 대상으로 연도별 현황, 연구자 전공분야,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의 분석준거에 따라 살펴보고 분류함으로써 연구의 흐름과 방향을 정리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난임 연구의 연도별 논문 편수 분석 결과 1988년에 학위 논문으로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해마다 꾸준히 연구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연평균 게재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전체 연구 100편 중 72% 이상이 2006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시기가 연구의 성장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난임 연구가 이 시기에 급성장한 것은 정부가 난임 부부 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 난임 대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난임이 더 이상 개인이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돌봄의 문제라는 대중의 인식 전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난임 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고 이에 따라 난임 연구도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난임에 대해 학문분야별로 살펴본 결과 분석 대상인 100편의 연구 중 간호보건학 분야가 62%로 전체 연구의 과반수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 분야가 난임 대상자의 접근이 용이한 임상체계와 대상자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간호보건학에 한정되어 있던 난임 연구가 2010년대 이후 상담・심리학 분야의 연구 활성화와 더불어 인접 학문인 예술치료 분야, 사회복지 분야, 가정・여성학 분야까지 확산되어 난임에 대한 다학문적인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난임 대상

Table 7. Analysis of trends by major field

	Quant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Mixed research	Literature research	n(%)
	Survey	Experimental	n				
Health nursing	45	5	50	10	0	2	62(62%)
Art therapy	2	5	7	5	1	0	13(13%)
Counseling psychology	2	2	4	4	0	4	12(12%)
Social welfare	2	0	2	5	0	0	7(7%)
Family Feminine	1	0	1	3	0	1	5(5%)
Social	0	0	0	1	0	0	1(1%)
n(%)	52	12	64	28	1	7	100(100%)

자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과 고통을 다루는 영역인 상담・심리학 분야와 예술치료 분야의 연구는 25%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연구의 편수도 부족하고 난임 대상자들의 심리적 적응과 안녕에 대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편이다. 이는 난임 및 난임 치료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고통을 줄이고 적응적 대처방법을 위한 심리적 개입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의 제언(Gameiro & Boivin, 2015)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한 난임 대상자에 대해 폭넓고 심층적인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난임 인구의 증가와 관련하여 난임 대상자들에게 심리적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서비스와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연구와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 대상별 동향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가 여성에 집중되어 있어 연구대상의 범주가 제한적이었다. 난임의 문제가 여성의 단독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이 여성에만 집중되었던 이유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의 주체라는 인식과 더불어 남성에 비해 심리적 고통을 더 크게 느끼기에 이에 대한 심리적 개입의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로 사료된다. 반면에 난임 남성에 대한 연구가 2편(2%)으로 아주 미비한 것은 남성이 난임 연구의 주된 관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난임이 여성의 문제라는 사회적 편견과 더불어 남성들이 자신의 고통을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Jeong, 2014). 난임 부부에 대한 연구 역시 5편 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난임이 부부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논의가 난임 여성의 고통과 그 해결 방법에 주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남성과 부부는 상대적으로 연구주제에서 소외되어 난임 연구의 주된 관심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이다. 난임 여성의 부정적 정서가 부부의 관계적 차원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Kim & Kim, 2018: 104), 부부관계의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삶의 질이 증가한다(Gameiro, 2011: 9)는 것을 고려하면, 난임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공유하는 문제로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개인보다는 부부로 접근해야 한다(Peterson & Newton, 2003; Kim, *et. al.,* 2016). 따라서 향후에는 연구대상에 남성을 포함함으로써 난임의 문제를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문제로 인식하고 연구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대상의 확대를 통해 난임으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과 남성의 심리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난임 대상자들이 겪는 현상들을 규명함으로써 하나의 통합된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난임 연구의 주제별 동향을 살펴본 결과 크게 7개의 주요 주제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학술지 논문과 석사학위 논문은 심리・적응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주제연구가 가장 많았고 박사학위 논문은 난임 경험과 심리・적응에 대한 주제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나머지 주제는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7개의 주요 주제 가운데 심리・적응과 관련된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가 48편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으로 나타났다. 심리・적응 연구의 절반은 스트레스가 중심주제였고 그 밖에 우울, 불안, 고독감, 슬픔, 적응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에 대한 연구가 절반을 차지하였다. 특히 난임 연구 초기에서 중반까지 연구의 절반이 스트레스 변인에 대한 제한적인 연구에 머물렀는데, 난임 연구가 빠른 성장을 보인 2012년 이후에는 연구주제가 폭넓고 다양해지기 시작하였다. 난임 상담 프로그램의 상담 성과에 대한 연구주제는 16편으로 나타났다. 난임 상담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에 의하면 난임이나 난임 시술로 유발된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고(Boivin, *et. al.,* 2011; Chow, *et. al.,* 2016), 자기지각 증진, 결혼 만족도 개선에 효과적이며(Luk & Loke, 2016), 일부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임신율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emmeril, *et. al*., 2009; Frederiksen, *et. al*., 2015). 따라서 난임 대상자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실제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개발 및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어 난임 경험 연구 13편으로 난임 여성들의 주관적 삶의 경험을 분석한 연구였다. 이것들은 주로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난임 여성들의 언어로 표현된 난임 경험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난임 경험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13편으로 주로 난임 여성의 삶의 질과 관련된 영향 요인분석 연구과 삶의 질 모형 관련 연구로 나누어진다. 삶의 질은 난임 대상자의 정신적 건강, 사회적 관계 등의 다차원적인 것을 포함하는(Kamphuis, *et. al.,* 2002)것으로 주로 간호행위와 건강관리의 주요 목표로 간주되어 간호보건학 분야에서 집중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난임은 다양한 변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임을 고려했을 때 다차원적인 변인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어 측정 도구 및 척도에 대한 연구는 2편에 불과하였는데 척도는 표집을 대상으로 문항을 수집・분석한 것으로, 연구에서 보다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난임 상담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도구들이 개발되고 타당화되는 작업이 필요한데(Kwon, 2019: 100) 이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수준이므로 수량화 가능한 평가도구의 개발은 향후 난임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난임 연구의 방법은 64%가 여성의 정서적 상태를 측정하는 양적 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 연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간호보건학 분야도 전체 연구의 81%가 양적연구였으며, 최근 10년간 많은 논문을 배출하고 있는 예술치료 분야도 53.8%가 양적연구로 이루어져 있었다. 양적 연구는 연구의 대표성과 일반화를 위한 변인의 분리와 통제라는 이점이 있지만 계량화된 양적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양적 연구는 난임 대상자들이 겪는 내밀한 경험들을 담아낼 수 없는 한계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전체 연구의 28% 가량으로 사회복지(71%), 여성・가정(60%), 상담・심리(33.3%) 분야에서 질적 연구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이는 질적 연구가 난임이라는 드러내기 쉽지 않은 심리적 현상을 규명하는 데 효과적이며, 난임 대상자들이 겪는 내밀한 경험들을 묘사, 설명,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연구의 유용성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대상자의 특성상 쉽게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 대상이 아니므로 양적 연구보다는 적은 인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좀 더 심도 깊은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자의 주관적 편견의 개입과 연구대상자의 소수참여로 인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연구대상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연구 패러다임인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ology)의 활용이 필요하다(Creswell, 2003: 105; Kwon & Yang, 2014). 지금까지 난임 연구에서 혼합연구는 예술치료 1편 밖에 없으나 향후의 난임 연구에는 혼합연구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장점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방법론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난임과 관련된 다양한 결과 변인의 효과와 특성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양적 연구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방법 모색이 요구되며 질적연구와 혼합연구의 방법을 통해 변화 기제들을 찾고 효과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난 32년간 국내 난임 연구 동향에 대한 전반적인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KCI 학술지와 학위논문에 있는 100편의 연구 동향을 처음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수집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기초사항,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별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함으로 국내 난임 연구의 독특성과 앞으로의 지향점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난임 연구에 대한 폭넓은 자료 정리와 분석을 통해 앞으로 난임 연구에서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을 설계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후속

연구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연구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분석 대상 논문이 국내 논문에 한정되어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난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축적된 북미나 해외에서 수행된 연구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외 연구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연구주제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심화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난임의 심리적 문제의 심각성과 심리적 개입의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심리적인 요인에 대한 통찰과 심층적인 연구가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난임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난임여성에 집중되어 있는 연구대상의 범위를 부부와 난임 남성으로 확대하여 연구하고 이들을 위한 심층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부부중심의 난임 치료와 지지체계를 통해 난임의 진단과 치료과정으로 인해 초래된 부부관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임신에 집착하고 메이는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난임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부부 친밀도가 우울증상에 가장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Hwang, 2003: 182). 또한 난임의 원인에 있어서도 남성의 요인이 30% 수준이기 때문에(Gu, *et. al.,* 2001), 난임 문제는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하며 부부와 남성에 대한 연구로 주제를 확장함으로써 난임의 근본 원인과 해결 방안을 연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난임 상담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도구의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난임 대상자들의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심리적 개입을 위한 연구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난임과 관련된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이 더욱 전문성을 갖추어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난임의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난임치료와 상담에 대한 전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References

Alice, D. Domar. 2000. Impact of Group Psychological Interventions on Pregnancy Rates in Infertile Women. *Fertility and Sterility*. 73(4): 805-811.

Alice, D. Domar, Kristin L. Rooney, Benjamin Wiegand, E. John Orav, Michael M. Alper, Brian B. Berger, and Janeta Nikolovski. 2011. Impact of Group Mind/Body Interventions on Pregnancy Rates in IVF Patients. *Fertility and Sterility*. 95(7): 2269-2272.

Alice, D. Domar, Zuttermeister P. C., and Friedman R. 1993. The Psychological Impact of Infertility: A Comparison with Patients Other Medical Conditions. *Journal of Psychosomatic Obstetrics Gynecology*. 45(52): 45-52.

Bae, Kyung Eui and Choon Hwa Park. 2007. Experiences of Infertile Women in Artificial Insemination.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8(2): 23-35.

Boivin, J., E. Giffiths, and C. A. Venetis. 2011. Emotional Distress in Infertile Women and Failure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Meta-analysis of Prospective Psychosocial Studies. *The British Medical Journal*. 342(223): 481.

Burns, Linda H. 1993. An Overview of the Psychology of Infertility. *Reproductive Medicine Clinics of North America*. 3: 433-454.

Celia, H. Y. Chan, Ernest H. Y. Ng, Cecilia L. W. Chan, and Timothy H. Y. Chan. 2006. Effectiveness of Psychosocial Group Intervention for Reducing Anxiety in Women Undergoing In Vitro Fertilization: A Randomized Controlled Study. *Fertility and Sterility*. 85(2): 339-346.

Cho, Seong Ho. 2003. Analysis of Research i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88~2003).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therapy*. 15(4): 811-832.

Chow, K. M., M. C. Cheung, and I. K. Cheung. 2016. Psychosocial Interventions for Infertile Couples: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5: 2101-2113.

Chung, Hyun Jung. 2010. The Effect of laughter Therapy on Infertility Stress and Anxiety of Women Receiving in Vitro Fertilization.

Master Thesis. Catholic University.

Cousineau, Tara M., Sarah E. Lord, Angel R. Seilbring, Evelyn A. Corsini, Jessie C. Viders, and Shaheen R. Lakhani. 2004. A Multimedia Psychosocial Support Program for Couples Receiving Infertility Treatment: A Feasibility Study. *Fertility and Sterility*. 81(3): 532-538.

Creswell, John W. 2003.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Faramarzi, Mahbohen, Ahmod Alipor, Seddighen Esmaelzadeh, Farzan Kheirkhaha, Karamolah Poladi, and Hagar Pash. 2008. Treatment of Depression and Anxiety in Infertile Women: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Versus Fluoxetin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08(1-2): 159-164.

Frederiksen, Y., I. Farver-Vestergaard, N. G. Skovgard, H. J. INgers lev, and R. Zachariae. 2015. Efficacy of Psychosocial Interventions for Psychological and Pregnancy Outcomes in Infertile Women and Men. A Systematic Review. *BMJ*. 5(1): 1-18.

Gameiro, S., J. Boivin, E. Dancet, and C. De Klerk. 2015. ESHRE Guideline: Routine Psychosocial Care Infertility and Medically Assisted Reproduction- A Guide for Infertility Staff. *Human Reproduction.* 30(11): 2476-2485.

Gameiro, S., M. Moura-Ramos, M. C. Canavarro, T. A. Santos, and F. M. Dattilio. 2011. Congruence of the Marital Relationship During Transition to Parenthood: A Study with Couples Who Conceived Spontaneously or Throug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33(2): 91-106.

Gu, Byeong Sam. 2001. *Gynecology Endocrinology*. Seoul: Korea Medical Press.

Ha, Young Yoon. 2013.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Understanding on Lived Experiences of Infertile Women Participating in Mind-body Program. Master's'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Hammerli, K., H. Znoj, and J. Barth. 2009. The Efficacy of Psychological Interventions for Infertile Patients: A Meta-analysis Examining Mental Health and Pregnancy Rate. *Human Reproduction*. 15(3): 279-295.

Hwang, Na Mi, Soo Hyung Lee, In Sun Jang, Sang Lim Lee, and Nan Hee Lee. 2018. Evaluate the Results of Support Projects for Pregnant Women and Analyze the Status of Support for Low-income Familie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wang, Na Mi, Su Mi Chai, Yong Soo Kim, Jae Keun Kim, and Jin Woo Jeon. 2015. Strategies of Infertility Counselling Program in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Policy Implication in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

Hwang, Na Mi. 2003. The Status of Infertility and Policy Direction in Korea.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82: 88-97.

Hwang, Na Mi. 2011. Physical and Mental and Socio-economic Burdens and Demands of Women with Infertility Treatment.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74(6): 1-8.

Hwang, Na Mi. 2013. Factors Related to the Depression of Infertile Wome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3(3): 167-187.

Jeong, Kook In and Myung Yong Um. 2014. Phenomenological Case Study on the Nature of Infertility Experience by Male Partner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46(12): 29-54.

Jeong, Yeong Min and Sun Kyung Kang. 2017. A Phenomenological Study on Infertile Experiences of Women: “Waiting for Meeting”. *Studies on Life and Culture*. 44: 271-319.

Kamphuis, M., J. Ottenkamp, H. W. Vliegen, T. Vogels, K. H. Zwinderman, R. P. Kamphuis, and S. P. Berloove-Banhorick. 2002.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nd Health Status in Adult Survivors with Previously Operated Complex Congenital Heart Disease. *Heart*. 87(4): 356-362.

Kang, Eun Young. 2015. The Development and Effect of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Program for Psychosocial Adjustment of Infertile Wome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6(3): 451-471.

Kang, Hee Sun. 2004. Experiences of Infertile Women in Unsuccessful in Vitro Fertilization (IVF).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e*. 10(2): 119-127.

Kang, Sung Ye and Youn Jeong Lee. 2015.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s of Infertility among Married Women. *Women's Studies Review*. 32(2): 61-89.

Kim, Eun Jung. 2011. A Single Case Study on the Art Therapy for Infertility Stress and Depression.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Kim, Eun Kyung and Hyun Joo Kim. 2017. A Content and Methodological Review of Qualitative Inquiry Concerning Immigrant Youth: Analysis of Articles in Domestic and North American Scholarly Journals (2003-2015).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8(2): 245-270.

Kim, Hae Won. 2007. Infertility Stress of Infertility Clinic Assistance Women.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Kim, Joo Hee and Hae Sook Shin. 2013. A Structural Model for Quality of Life of Infertile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3(3): 312-320.

Kim, Mi Ok and Hee Sun Kim. 2018. Mediator Effect of Marital Intim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Marital Satisfaction of Infertile Women.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2(1): 96-108.

Kim, Mi Ok, Jung Sook Park, and Hyun A Nam. 2016. Factors Associated with Marital Satisfaction of Women under Infertility Treatments. *Journal of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20(3): 228-238.

Kim, Sun Hang, Young Joo Park, and Sung Ok Jang, 199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Infertility Stres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5(1): 141-155.

Kwon, Jung Hae. 2019. Infertility Counseling as Evidence-based Practic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4(2): 87-104.

Kwon, Kyung In and Jung Hae Yang. 2014. Trends in Mixed Methods Research in Counseling.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35(1): 103-124.

Luk, B. H. K. and A. Yuen Loke. 2016. A Review of Supportive Interventions Targeting Individuals or Couples Undergoing Infertility Treatment: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Interventions.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42(6): 515-533.

Mosalanejad, Leili. 2012. Effect of Group Cognitive Behavior Therapy on Hardiness and Coping Strategies among Infertile Women Receiving Assisted Reproductive Therapy. *Iran Journal of Psychiatry and Behavioral Sciences*. 6(2): 16-22.

Oh, Eun Kyung, Mi Choi, and Han Na Choi. 2016. The Trend of Multi-cultural Counseling Studies in South Korea: Analysis of Academic Journal and Thesis (1993~2016.7).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7(5): 223-242.

Park, Ha Young and Young A Ju. 2019. The Effect of the ACT Counseling Program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Women with Infertility. *Journal of Cognitive Enhancement and Intervention.* 10(1): 1-24.

Park, Kang Hee. 2014. The Pastoral Counseling of Mourning for Infertile Women from the Feminist Perspective. Ph.D. Dissertation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Brennan, D. Peterson, Christopher R. Newton, and Karen H. Rose. 2003. Examining Congruence between Partners' Perceived Infertility-related Stress and Its Relationship to Marital Adjustment and Depression in Infertile Couples. *Family Process*. 42(1): 59-70.

Sameer, Valsangkar, T. Bodhare, Samir Bele, and Sai Surendranath. 2011. An Evaluation of the Effect of Infertility on Marital, Sexual Satisfaction Indices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Women. *Journal of Human Reproductive Sciences*. 4(2): 80-85.

Shin, Ae Ja and Yong Soo Kim. 2016. The Research Trends and Meta Analysis on Variables Related to Gratitud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7(1): 149-168.

Shin, Chang Ho. 2016. The Analysis of Trends for Alcoholism Counseling Research in Korea.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7(3): 89-103.

Statics Korea. 2018. Final Results of Birth Statistics in 2018. 1-4.

Statics Korea. 2019. Population Trend Survey 2019. Interim Results of Birth and Death Statistics. 1-140.

Yang, So Nam. 2019. The Experience of Infertility Treatments Among Working Women without Childr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48: 93-120.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강성례, 이윤정. 2015. 기혼여성의 불임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학논집. 32(2): 61-89.

강은영. 2015. 난임 여성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상담학연구. 16(3): 451-471.

강희선. 2004. 여성의 불임경험: 체외수정 실패 경험자를 중심으로.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0(2): 119-127.

구병삼 외. 2001. 임상 부인과 내분비학. 서울: 고려의학. 303-470.

권경인, 양정혜. 2014. 상담 분야 혼합연구 동향분석. 교육연구

논총. 35(1): 103-124.

권정혜. 2019. 근거기반실무로서 난임상담의 실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4(2): 87-104.

김미옥, 김희선. 2018. 난임 여성의 우울과 결혼만족도와의관계에서 부부 친밀감의 매개효과.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2(1): 96-108.

김미옥, 박정숙, 남현아. 2016. 난임 치료중인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0(3): 228-238.

김선행, 박영주, 장성옥. 1995. 불임 스트레스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5(1): 141-155.

김은경, 김현주. 2017. 이주배경 청소년에 관한 질적 연구동향: 국내 및 북미 학술지 게재 논문 분석(2003-2015). 상담학연구. 18(2): 245-270.

김은정. 2011. 불임 스트레스와 우울에 관한 미술치료 단일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김주희, 신혜숙. 2013. 삶의 질 모형 구축. 한국간호과학회지. 43(3): 312-320.

김혜원. 2007. 불임 클리닉 내원 여성의 불임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박강희. 2014. 불임여성을 위한 여성주의 애도 목회상담 연구.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박하영, 주영아. 2019. 난임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ACT 프로그램 구성효과. 인지발달중재학회지. 10(1): 1-24.

배경의, 박춘화. 2007. 불임여성의 인공수정 경험. 질적연구. 8(2): 23-35.

신애자, 김용수. 2016. 감사 연구동향 및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7(1): 149-168.

신창호. 2016. 국내 알코올중독 상담 관련 연구동향 분석. 상담학연구. 17(3): 89-103.

양소남. 2019. 무자녀 기혼여성의 난임 치료 경험. 한국사회복지교육. 48: 93-120.

오은경, 최미, 최한나. 2016. 국내 다문화 상담 연구 동향: 학술지 및 학위 논문 분석(1993~2016.7). 상담학 연구. 17(5): 223-242.

정국인. 2014. 남성들의 난임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6(12): 29-54.

정영민, 강선경. 2017. 여성의 난임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생명연구. 44: 271-319.

정현정. 2010. 웃음요법이 체외 수정을 받은 여성의 불임 스트레스와 불안효과.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조성호. 2003.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811-832.

통계청. 2019.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 1-140.

하영윤. 2013. 난임여성의 심신 프로그램 참여 체험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황나미, 이수형, 장인순, 이상림, 이난희. 2018.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평가 및 저소득층 지원실태 분석. 보건복지부.

황나미, 채수미, 이상림, 김용수, 김재근, 전진우. 2015. 주요선진국의 난임상담 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황나미. 2003. 우리나라 불임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82: 88-97.

황나미. 2011. 불임 치료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및 사회경제적 부담실태와 요구도. 보건사회연구. 74(6): 1-8.

황나미. 2013. 난임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33(3): 167-187.

Received: May 18, 2020 / Revised: Jun. 8, 2020 / Accepted: Jun. 8, 2020

국내 난임에 대한 심리적 지원 연구동향

- 학술지 및 학위 논문 분석(1988~2020.2)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난임 심리적 지원에 대한 연구논문들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난임 연구에 관한 동향을 파악하고, 현재 난임 연구의 특징과 경향성을 가늠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988년부터 2020년 2월까지 국내의 학술지와 석, 박사학위 논문 100편을 분석하였고 연구 분석을 위해 논문의 기초사항(연도별 게재현황, 연도별 학문분야 게재현황),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 등의 평정 기준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연구연도별 연구동향을 살펴볼 때 난임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 이후로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문분야 게재 현황에서는 난임 대상자를 가장 많이 접하고 임상의 기회가 많은 간호학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대상은 난임 여성 대상이 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주제는 심리・적응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연구방법은 양적연구가 64%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결과의 시사점과 향후 난임 상담과 연구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불임, 난임, 자발적 무자녀, 연구동향, 내용분석

Profiles **Kang Hee Park :** She received her M.A., Ph.D. from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in 2014. She is a senior supervisor of the Ewha Pastoral Counseling Center at Ewha Womans University, in which she has taught since 2014. Her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and education is psychological crisis, group counseling and infertility counseling(pkhope@naver.com).